



가계 재무건전성은 개선, 부채 보유 가구 수는 증가

채원영 연구원

- 2012년 3월 말 현재 국내 가계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.1%p 감소한 17.3%,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.1%p 감소한 67.5%로 가계의 자산부채 현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.
 -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3.6%로 전년대비 6.0%p 감소하였으며,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7.0%로 1.3%p 감소하여 전반적인 가계 재무상황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는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이 3억 1,495만 원으로 전년대비 5.8% 증가¹⁾한데 반해 평균 부채는 5,291만 원으로 1.7% 증가에 그쳤기 때문임.
 - 자산은 금융자산 24.9%(7,855만 원), 실물자산 75.1%(2억 3,639만 원)로 구성되며, 금융자산비중은 전년대비 1.7%p 증가하고 실물자산 비중은 1.7%p 감소하였음.
 - 부채는 금융부채 68.0%(3,599만원), 임대보증금 32.0%(1,693만원)로 구성되며, 금융부채비중은 전년대비 1.1%p 감소하고 임대보증금 비중은 1.1%p 증가하였음.
 - 금융부채에서 담보대출이 2,879만 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.4%, 신용대출은 593만 원으로 전체 부채 중 11.2%를 차지함.
-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4.6%로 전년대비 1.8%p 증가하였으나, 가구당 평균 부채는 8,187만 원으로 1.2% 감소하였음.
 -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각각 부채 보유 가구의 34.3%, 23.3%이며, 평균 부채는 각각 8,386만 원, 2,548만 원임.

(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, 한국은행, 통계청, 금융감독원, 12/22)

1) 2012년 신규로 조사한 자산 항목*을 제외하고 2011년과 동일기준으로 비교하면, 평균 자산은 3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.5% 증가한 수준임. (* 2012년 신규 자산항목: 권리금, 자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, 건설 및 농업용 장비, 동물 및 식물)